

2019 STATE OF CLOUD ADOPTION IN KOREA

설문리포트 - 2019 국내 클라우드 도입의 현 주소





Contents

1	요약(Executive Summary)	04
2	조사 개요	07
3	클라우드 도입/활용 현황	09
	3.1 클라우드 도입 단계 및 현황	09
	3.2 클라우드 활용 수준	10
	3.3 클라우드 활용 전략	11
	3.4 클라우드 공급사	13
	3.5 클라우드 워크로드	13
	3.6 클라우드 비용 지출	14
	3.7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16
	3.8 클라우드 관리 주체	17
	3.9 클라우드 활용 정책	18
	3.10 클라우드 도입 시 애로사항	19
	3.11 클라우드 공급사 선정 시 고려 항목	21
	3.12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	22



Contents

4	클라우드 활용 전망	23
4.1	2019년 클라우드 예산	23
4.2	2019년 클라우드 전략	25
4.3	2019년 클라우드 변화	25
4.4	2019년 클라우드 도입 솔루션	26
4.5	4차산업 클라우드 관심 분야	28
5	종합(Summary)	30



1 요약(Executive Summary)

베스핀글로벌은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1달간 시장조사기관 KRG를 통하여 국내 사업체의 IT부서 및 클라우드 담당자 4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베스핀글로벌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국내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전망 등 주요 통계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2019년 클라우드 설문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91.4%에 이르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 중이거나 도입을 고려

전체 405개 응답 기업 중 35.4%가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현재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를 향후에 도입한다는 기업은 29.6%,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은 26.4%로 확인됨에 따라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선호하는 클라우드 전략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은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혼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중이 38.7%에 이르렀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 클라우드 도입 시 애로 사항 - 1위 '보안', 2위 '전문인력 부족', 3위 '비용 관리'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은 기업의 규모와 업종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47.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IT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44.0%, 클라우드 비용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은 40.3%가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도입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문가와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사 선호도 - 1위 'AWS', 2위 'Azure'

전반적으로 AWS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AWS는 게임, 의료, 제조, 미디어, 통신, 생명 과학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HW/SW를 아우르는 기술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사 대비 풍부한 서비스 사례를 확보했다는 점도 신규 클라우드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에게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AWS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클라우드 기반의 핵심 워크로드 - 1위 'Web/App 서비스', 2위 '개발/테스트'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Web/App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두번째로는 개발/테스트 워크로드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Web/App 서비스, 개발/테스트, IoT 등 분야에서 평균대비 높은 클라우드 이용률을 기록했으며, 중견/중소기업은 백업/스토리지의 사용 비중이 높다는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 2019년 클라우드로 전환을 고려하는 분야 - 1위 'DBMS'(38.4%), 2위 'SAP/ERP 시스템'(30.4%)

국내 기업은 DBMS, SAP/ERP 시스템의 클라우드화 역시 관심이 높았습니다. 기업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인 DBMS, SAP/ERP 등은 보안, 안정성 등의 이슈로 클라우드 전환이 더딘 분야였지만 이번 설문을 통해서 기업이 체감하는 보안, 안정성 등 장애요소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클라우드 기반의 4차 산업 워크로드 구현 - 1위 '빅데이터'(32.1%), 2위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26.7%)

레거시 산업과 4차산업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은 클라우드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미디어/콘텐츠 서비스의 클라우드화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는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소 만으로 그 한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빅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클라우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는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종이 빅데이터 클라우드 구현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적화된 방법 - 1위 'Right Sizing'(43.9%), 2위 '모니터링'(39.6%)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로 지출되는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기업은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클라우드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저렴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Right Sizing'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클라우드 도입/활용 기업의 63.3%가 클라우드 관련 조직이나 정책을 보유

효과적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하여 국내 기업은 클라우드 조직을 구성하거나 관련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조직을 보유한 비중은 51.8%, 정책을 보유한 경우는 46.0%, 조직과 정책 모두를 보유한 경우는 34.5%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만 보유 17.3%, 조직만 보유 11.5%)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클라우드 도입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클라우드 조직, 정책을 마련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사 선택 시 핵심 고려 요소는, '속도 및 성능(76.8%)', '안정적 운영(75.9%)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속도 및 성능'과 '안정적 운영'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고려할 때는 보안과 같은 이슈가 중요하지만 도입을 결정한 후 서비스사를 선택할 때는 속도 및 성능, 안정성이 우수한 서비스사를 우선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9년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 -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활성화

2019년 클라우드 핵심 전략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과 활성화'를 선택한 기업은 44.1%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사 개요

본 설문은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5일까지 국내 사업체의 IT부서 및 클라우드 담당자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응답자 수 405명(405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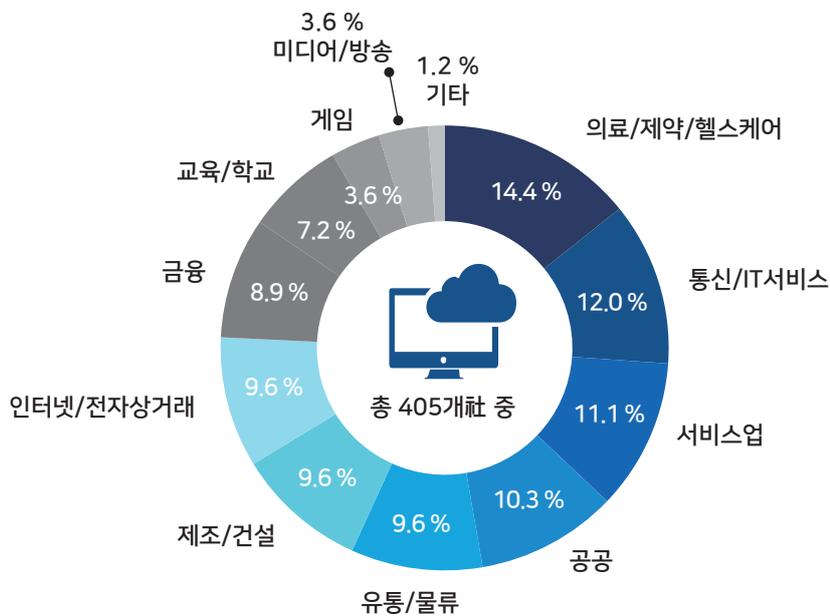
대기업 168개社

중견/중소기업 237개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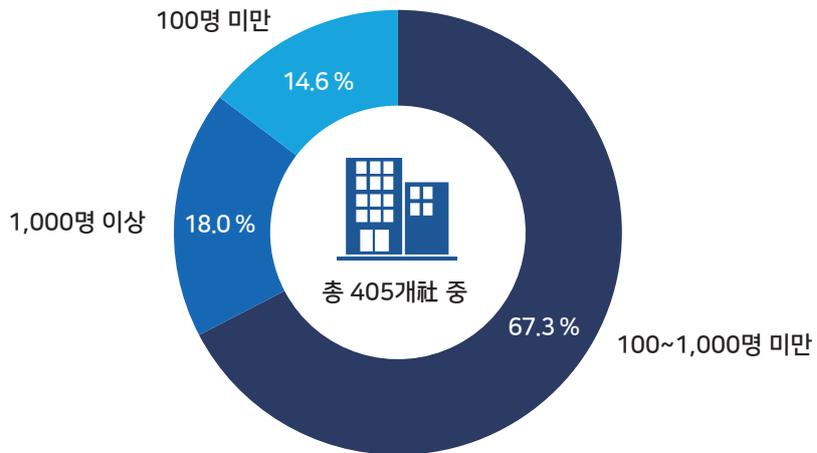
※ 본 보고서에 포함된 일체 사항의 저작권은 베스핀글로벌에 있습니다. 베스핀글로벌의 사전 동의 없이 보고서를 무단 배포하거나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응답자 분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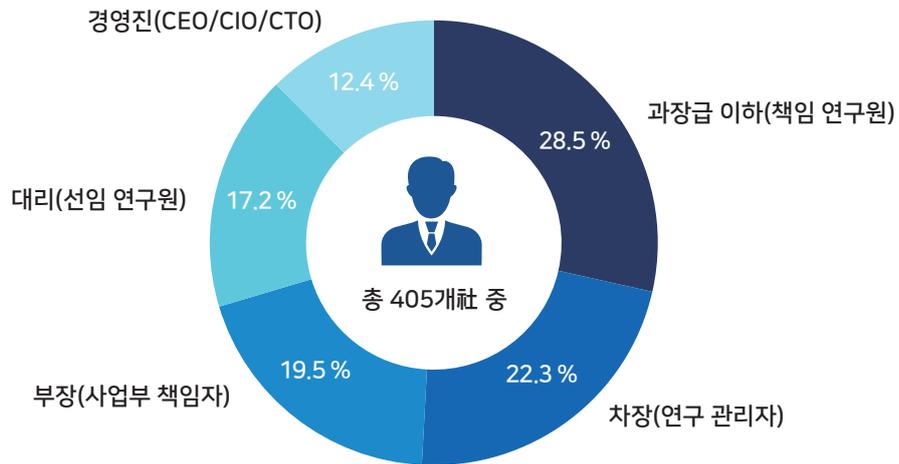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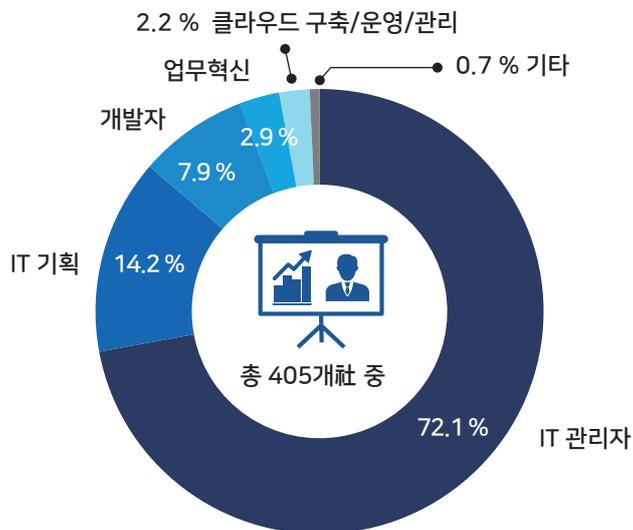
기업 규모별



응답자 직급별



응답자 업무별



3

클라우드 도입/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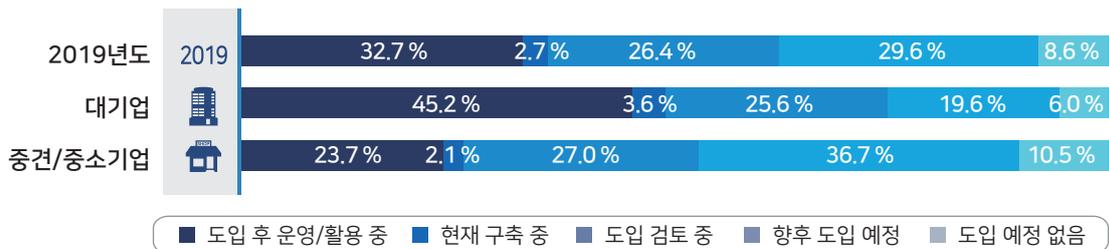
3.1 클라우드 도입 단계 및 현황

베스핀글로벌은 클라우드 도입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습니다.

- 도입 후 운영/활용 중: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운영/활용중인 단계
- 현재 구축 중: 클라우드의 도입을 결정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인 단계
- 도입 검토 중: 클라우드의 도입을 고려했으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단계
- 향후 도입 예정: 클라우드의 도입과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

전체 405개社 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후 운영/활용 중인 비중은 32.7%로 확인되었으며, 클라우드의 향후 도입예정 또는 검토 중인 비중은 각각 29.6%, 26.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도입 예정이 없다는 응답은 8.6%로 확인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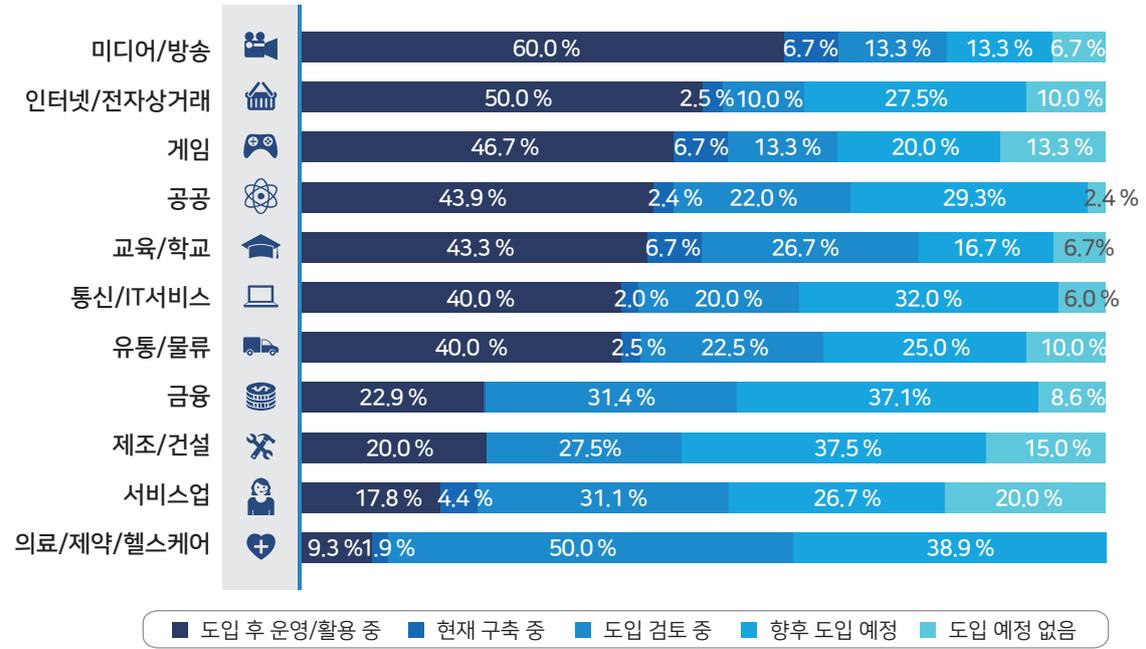
클라우드 도입 현황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미디어/방송 업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운영/활용 중인 비중은 60.0%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전자상거래는 50.0%, 게임 업종은 46.7%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료/제약/헬스케어 업종은 클라우드의 도입 비중이 가장 낮은 9.3%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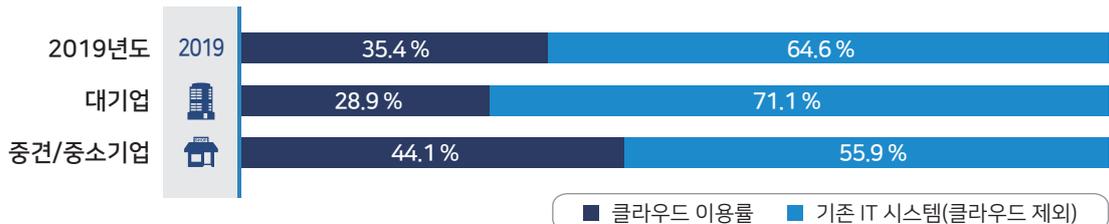
클라우드 도입 현황 - 업종별



3.2 클라우드 활용 수준

국내 기업의 전사 IT시스템 대비 클라우드 활용 수준은 35.4%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중견/중소기업의 44.1%, 대기업은 28.9%를 클라우드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사 IT시스템 대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수준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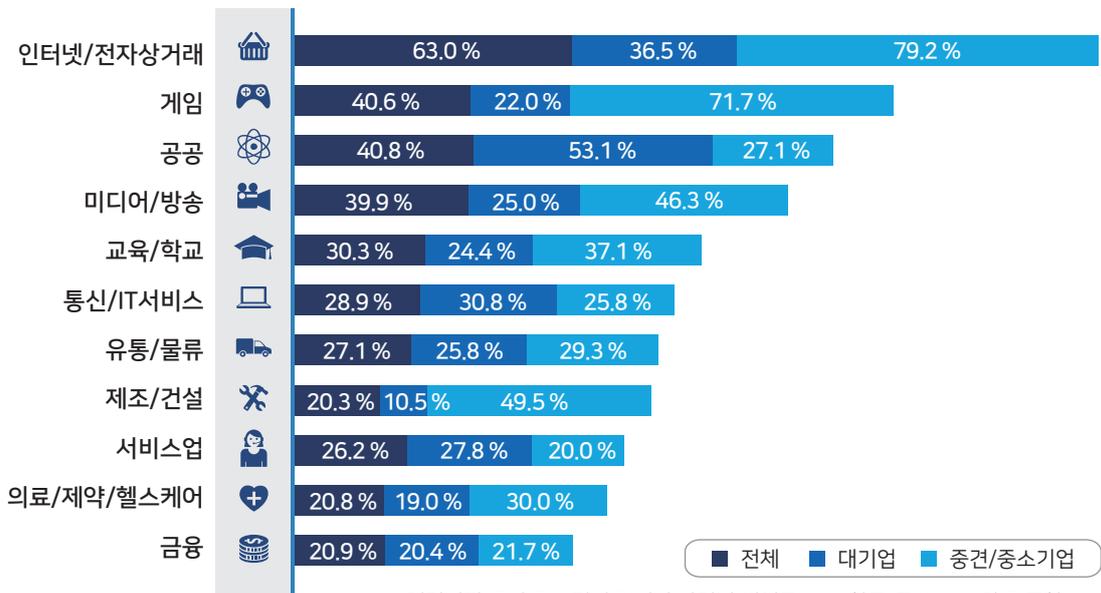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기업의 IT 시스템 대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수준이 높은 업종은 인터넷/전자상거래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종의 클라우드 활용 수준은 63.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 게임 등 업종의 클라우드 활용 수준은 각각 40.8% 40.6%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의료/제약/헬스케어, 제조/건설 등 분야는 클라우드 활용 수준이 20.8%, 20.3%로 저조했습니다.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활용 수준은 이번 설문 결과 20.9%로 낮게 나타났지만 '2019년 전자금융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사 IT시스템 대비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 수준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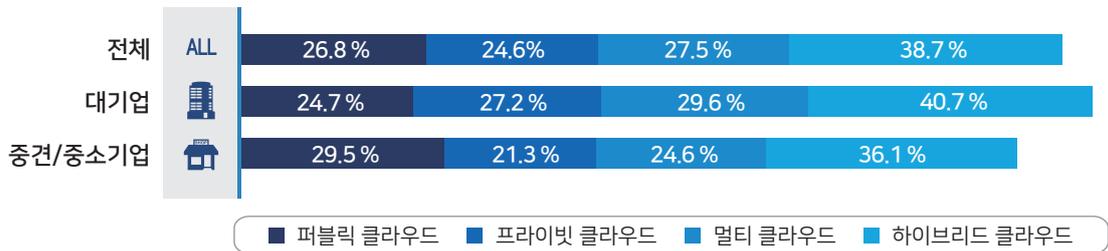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3.3 클라우드 활용 전략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은 단일 퍼블릭 클라우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를 혼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비중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이 40.7%로 중견/중소기업의 36.1% 대비 높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성과 퍼블릭 클라우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동시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활용이 주요 클라우드 전략으로 정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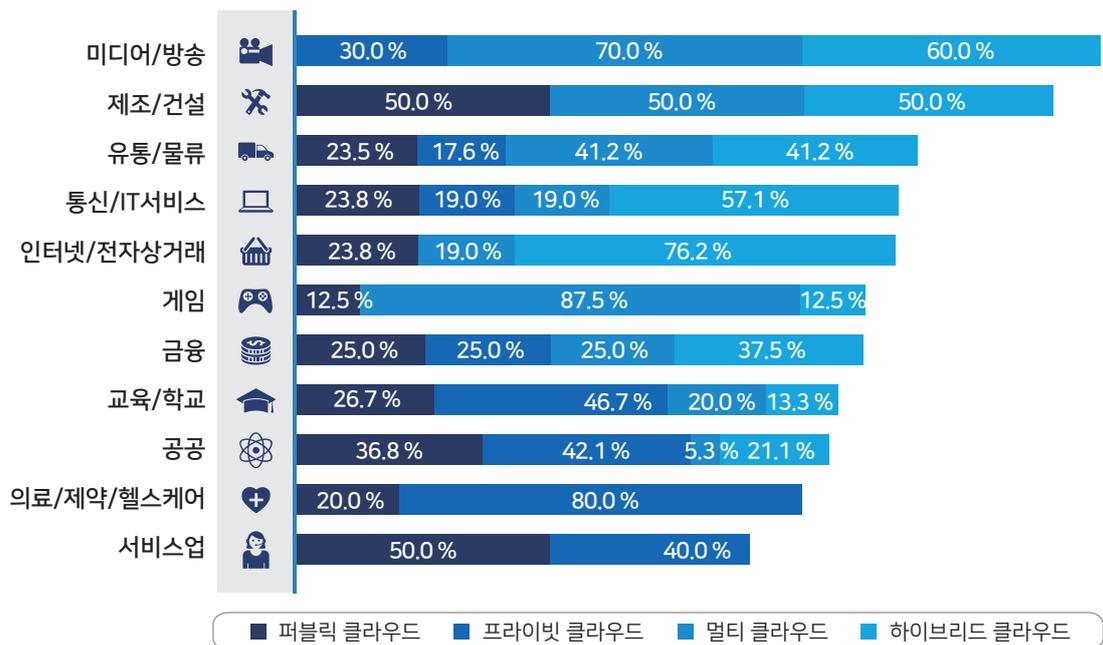
활용 전략 - 전체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클라우드 활용 전략의 비중은 대체로 미디어/방송 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은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이 각각 50.0%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의료/제약/헬스케어 80.0%,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종이 76.2%, 멀티 클라우드는 게임 업종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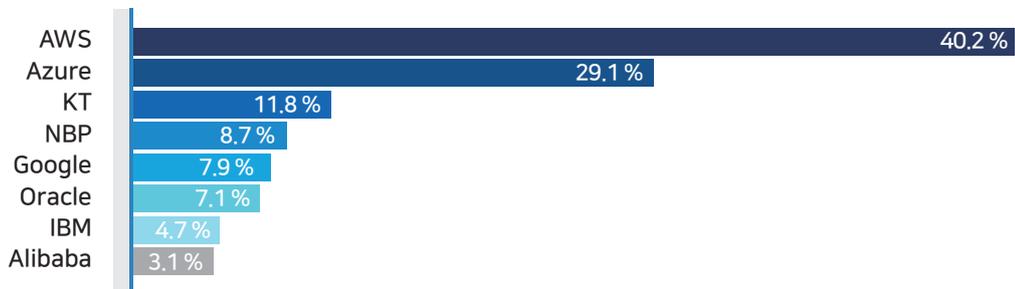
활용 전략 - 업종별



3.4 클라우드 공급사

클라우드 공급사 선호도는 AWS가 가장 높은 40.2%로 나타났으며, MS Azure가 29.1%로 두번째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AWS는 게임, 의료, 제조, 미디어, 통신, 생명 과학 등 다양한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HW/SW를 아우르는 기술 파트너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아울러 경쟁사 대비 풍부한 서비스 사례를 확보했다는 점도 신규 클라우드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에게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AWS의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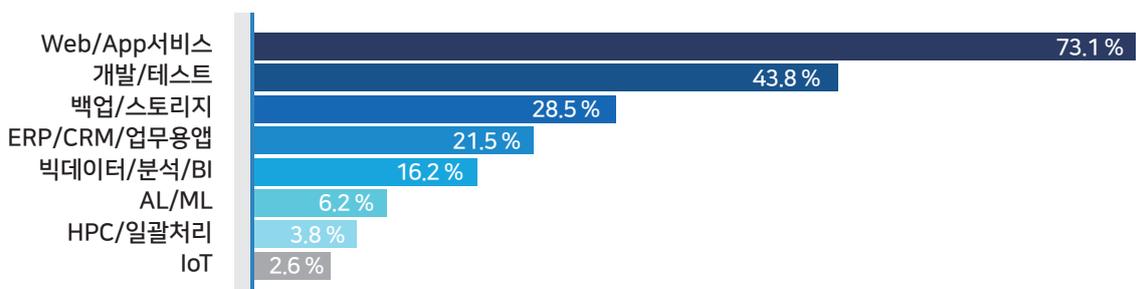
공급사별 활용 현황 - 전체



3.5 클라우드 워크로드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Web/App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두번째로는 개발/테스트 워크로드로 확인되었습니다. 워크로드와 공급사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 AWS의 Web/App 서비스 워크로드가 경쟁사 대비 높다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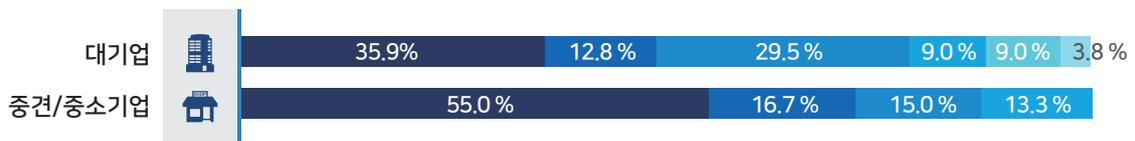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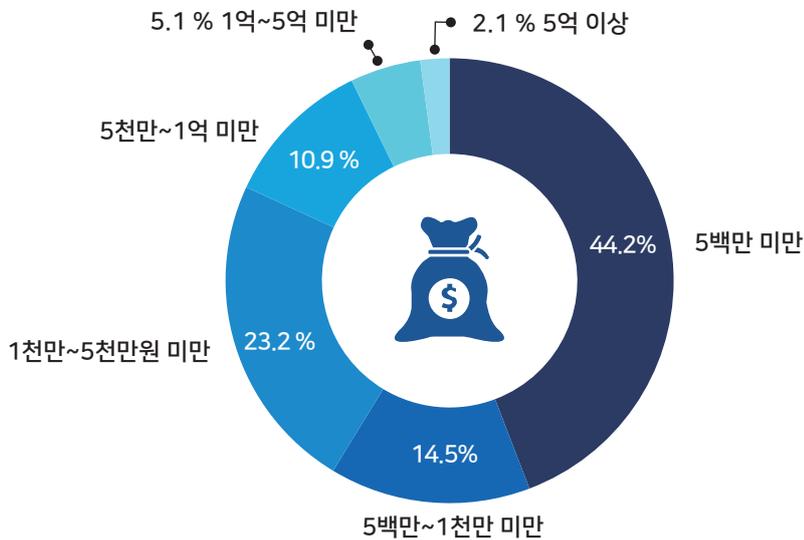
공급사별 활용 현황 - 전체



3.6 클라우드 비용 지출

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58.7%는 매월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클라우드 비용으로 지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매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클라우드 비용을 지출하는 대기업은 29.5%로 15%인 중견/중소기업 대비 2배에 이르렀으며, 대기업은 매월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비중도 포함 12.8%로 나타났습니다

지출비용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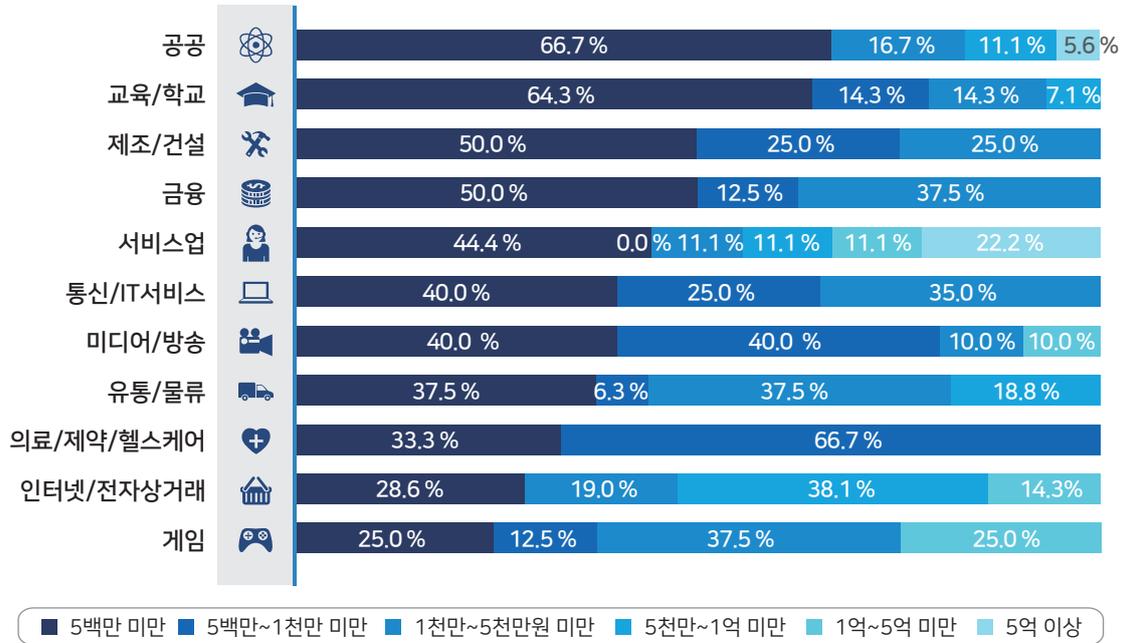


■ 5백만 미만 ■ 5백만~1천만 미만 ■ 1천만~5천만원 미만 ■ 5천만~1억 미만 ■ 1억~5억 미만 ■ 5억 이상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클라우드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업종은 게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료/제약/헬스케어 업종은 대체로 매월 1천만원 미만의 클라우드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월 5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는 업종은 서비스업과 공공 업종으로 각각 22.2%, 5.6%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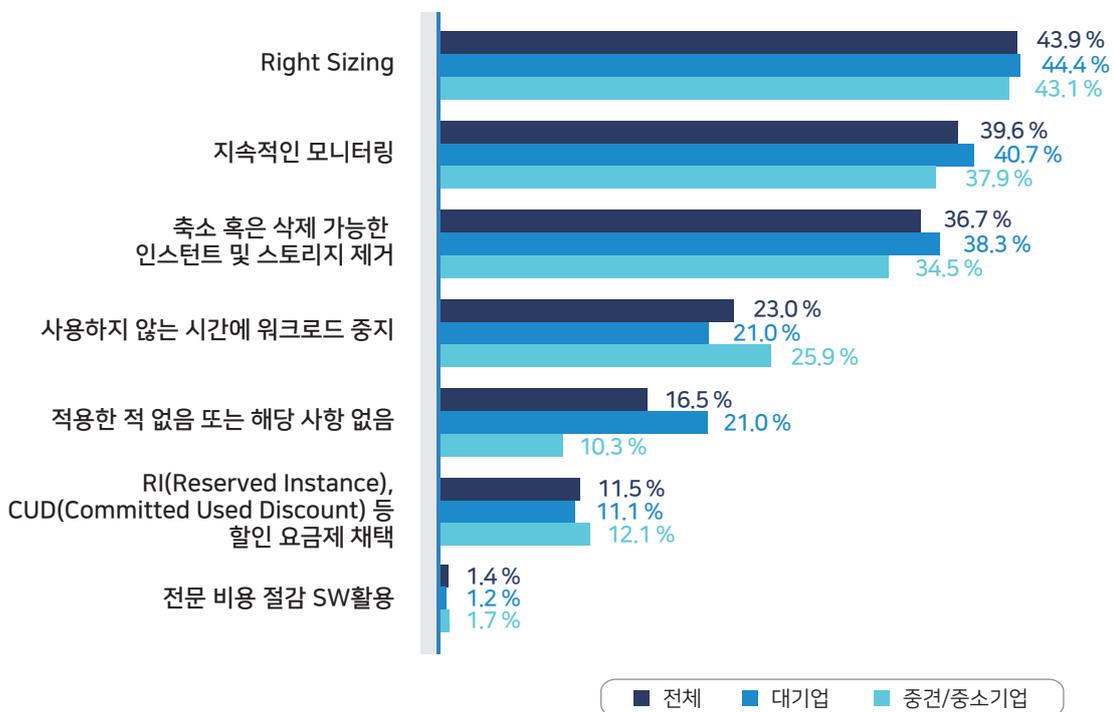
지출비용 - 업종별



3.7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기업은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클라우드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저렴한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Right Sizing'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비용 최적화 방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한다는 것으로 39.6%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비용 최적화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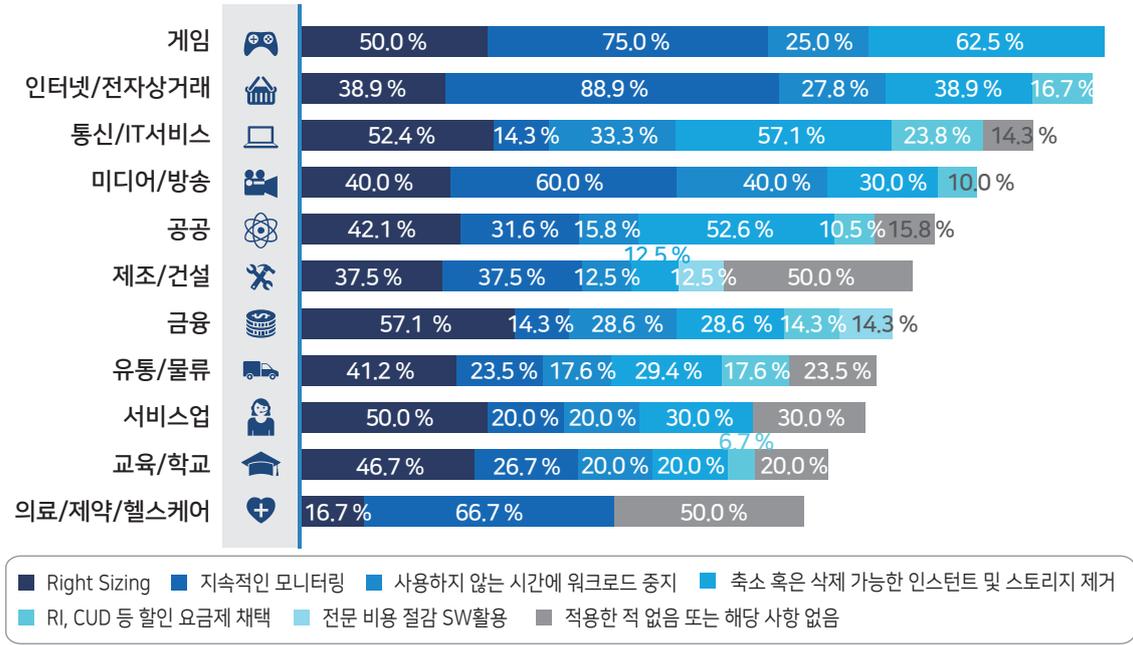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비용 최적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업종은 게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업 종의 비용 최적화 방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88.9%로 가장 높았으며, 게임 75.0%, 의료/제약/헬스케어 66.7%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업은 비용 최적화 방안으로 Right Sizing을 활용한다는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삭제 가능한 인스턴스 및 스토리지를 제거하여 비용 최적화를 실현한다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게임 62.5%, 통신/IT서비스 57.1%, 공공 52.6%로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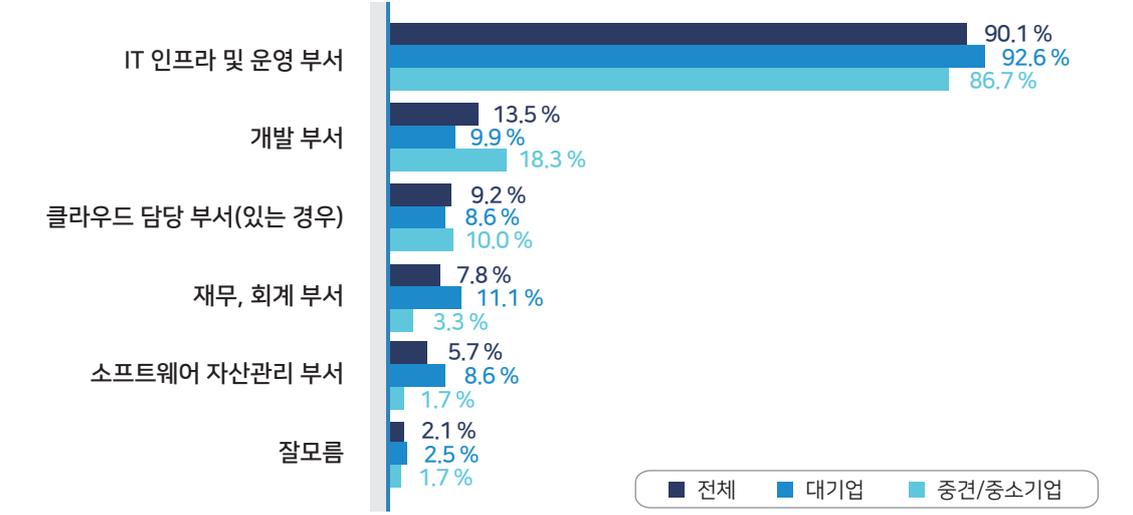
비용 최적화 - 업종별



3.8 클라우드 관리 주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관리 주체는 대체로 'IT 인프라 및 운영 부서'가 90.1%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개발부서는 13.5%, 클라우드 담당 부서가 별도 편성되어 존재하는 경우는 9.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관리 주체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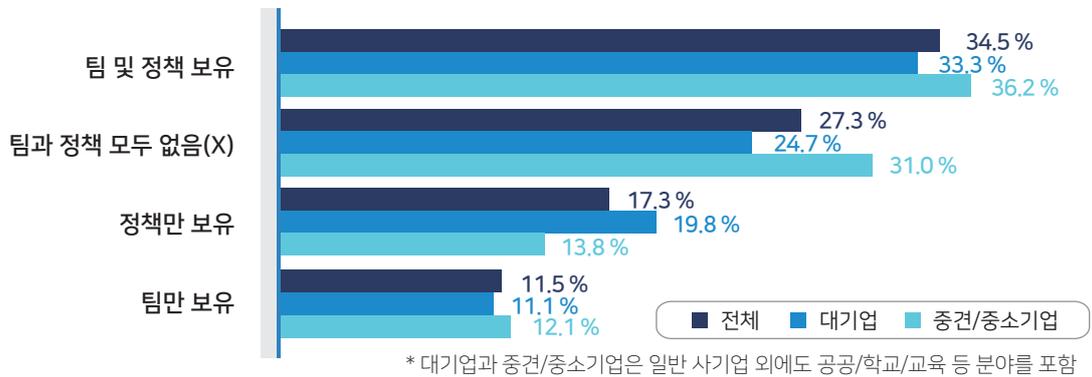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3.9 클라우드 활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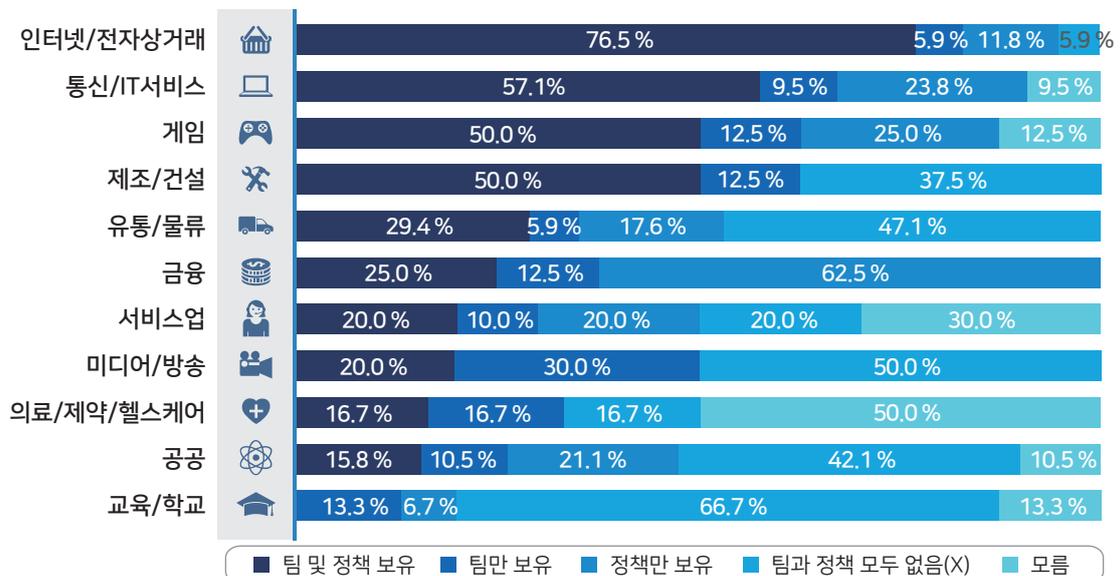
클라우드 부서를 별도 편성하지 않더라도 34.5%에 이르는 국내 기업은 클라우드 대응 팀이나 관련 정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만을 보유한 경우는 17.3%, 대응 팀은 보유했지만 관련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11.5%로 확인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정책 - 전체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종이 클라우드 팀과 정책을 모두 보유한 비중은 76.5%로 가장 높았습니다. 팀은 없지만 정책만 보유한 경우 금융업이 가장 높은 62.5%를 기록한 반면, 정책은 없지만 팀만 보유한 업종은 미디어/방송이 30.0%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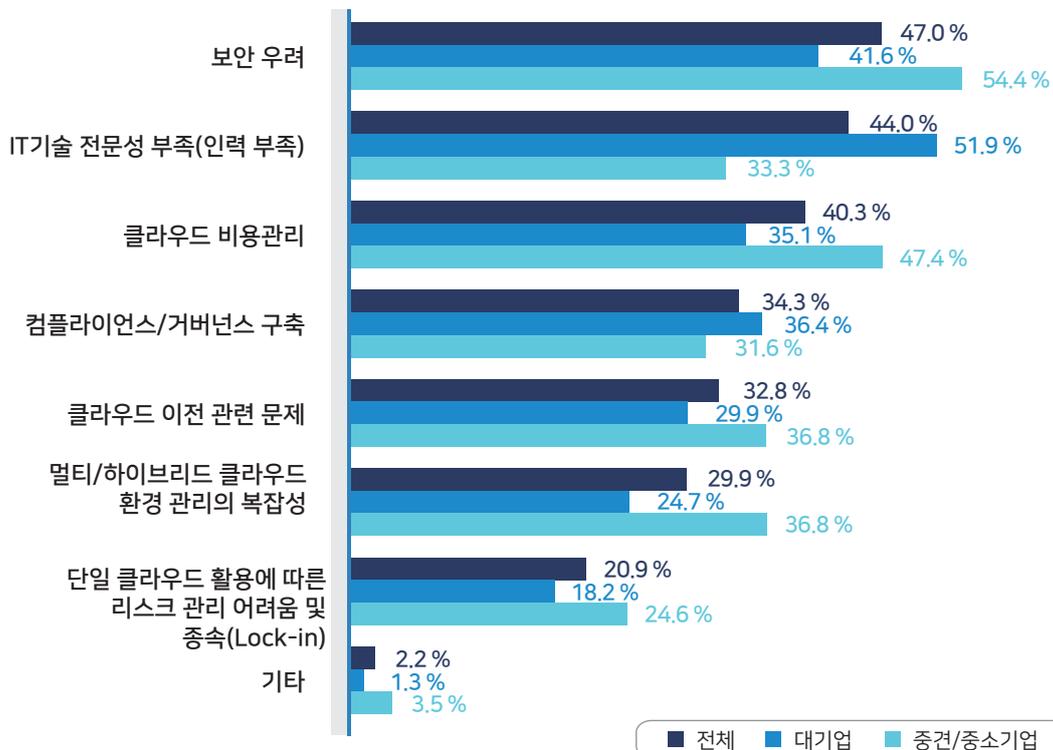
클라우드 정책 - 업종별



3.10 클라우드 도입 시 애로사항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에 대한 우려가 47.0%를 차지하며 클라우드 도입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IT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족이 44.0%, 클라우드 비용관리 어려움이 40.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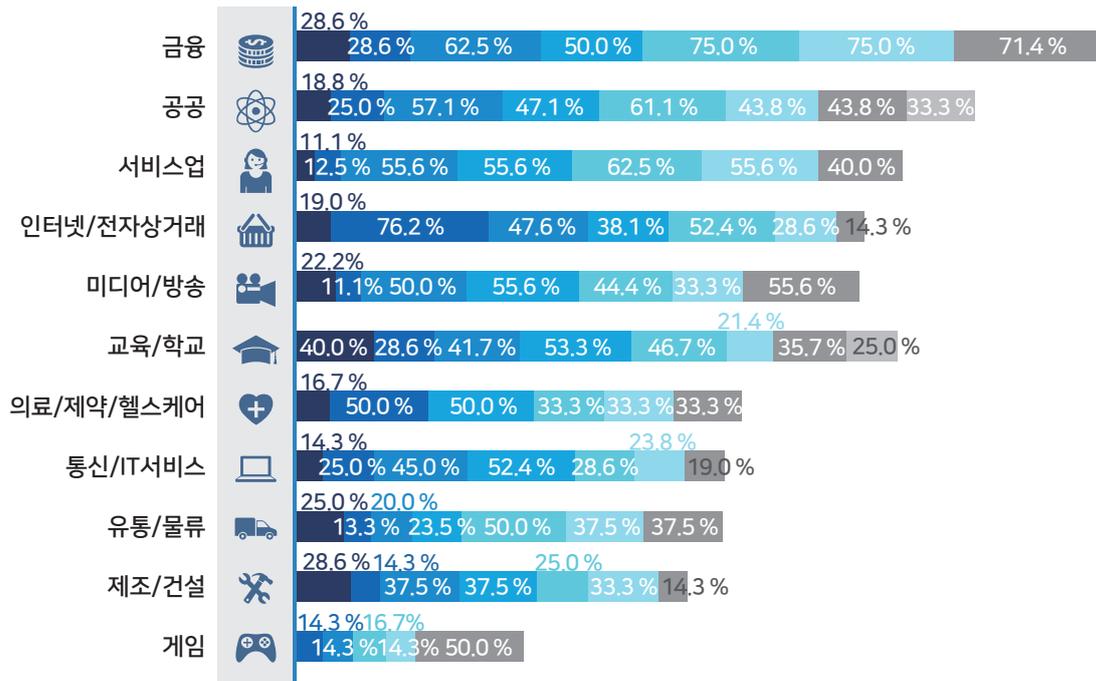
클라우드 도입 시 느낀 어려움 - 전체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클라우드 도입 시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업종은 금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 업종은 보안과 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 구축이 어렵다는 응답에 각각 75.0%의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느꼈으며 전체 업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76.2%를 나타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 시 느낀 어려움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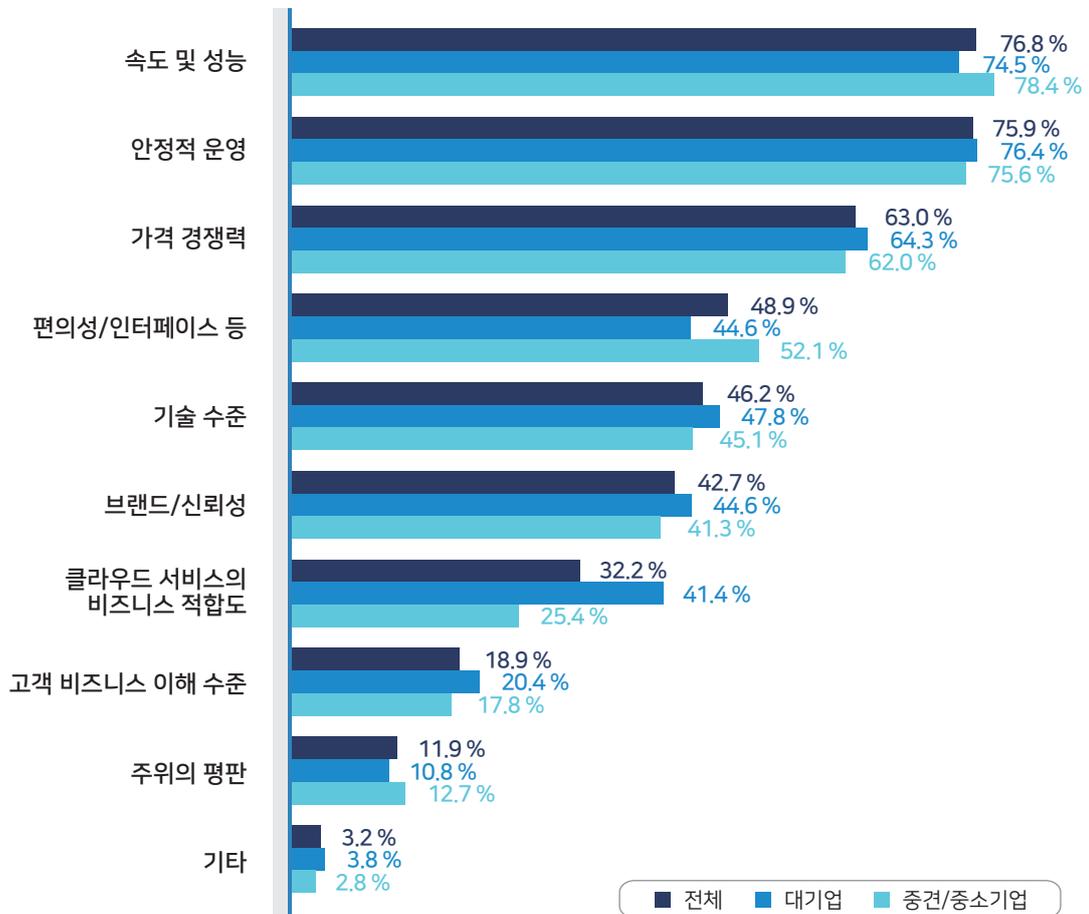


- 단일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 어려움 및 종속(Lock-in)
-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관리의 복잡성
- 클라우드 비용 관리
- IT기술 전문성 부족(인력 부족)
- 보안 우려
- 컴플라이언스/거버넌스 구축
- 클라우드 이전 관련 문제
- 기타

3.11 클라우드 공급사 선정 시 고려 항목

클라우드 공급사 선정 시 평가항목으로 속도 및 성능이 가장 높은 76.8%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속도 및 성능 평가항목에 대하여 74.5%, 중견/중소기업은 78.4%가 응답했습니다. 두번째 항목으로 평가된 안정적인 운영도 75.9%의 높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클라우드 공급사 선정 시 평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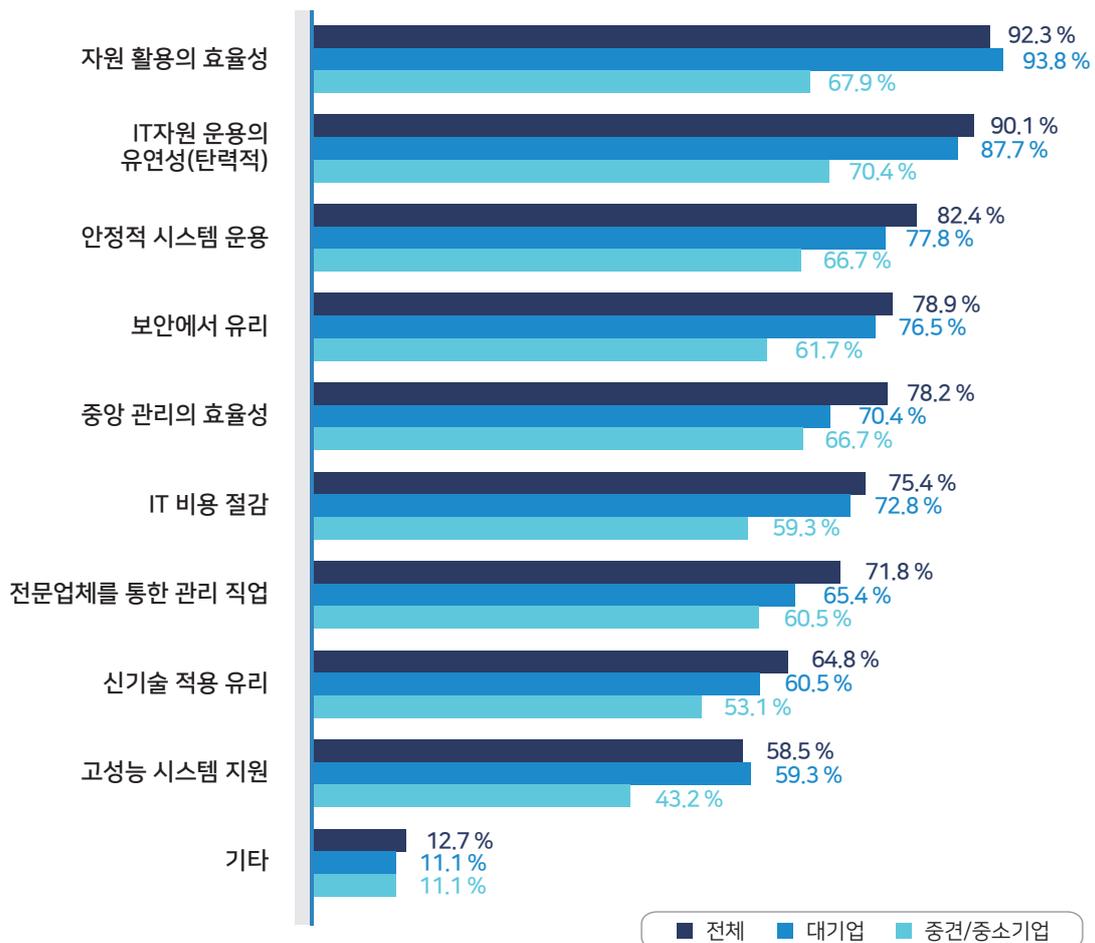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3.12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으로 국내 기업은 자원 활용의 효율성에 92.3%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장점은 대기업일수록 체감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의 장점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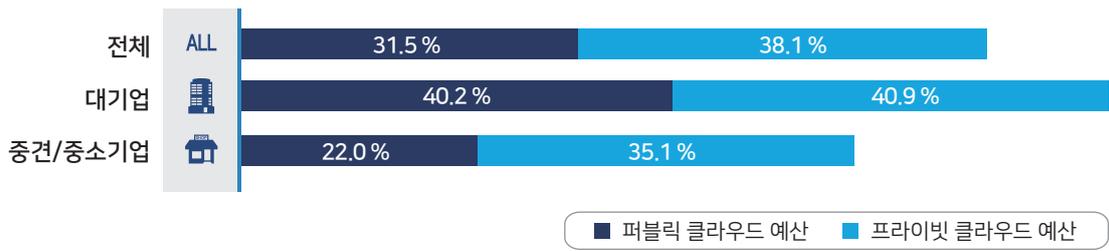
4

클라우드 활용 전망

4.1 2019년 클라우드 예산

2019년 기업의 클라우드 예산은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예산이 모두 확대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예산이 중견/중소기업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0.2% vs 22.0%).

클라우드 예산 변화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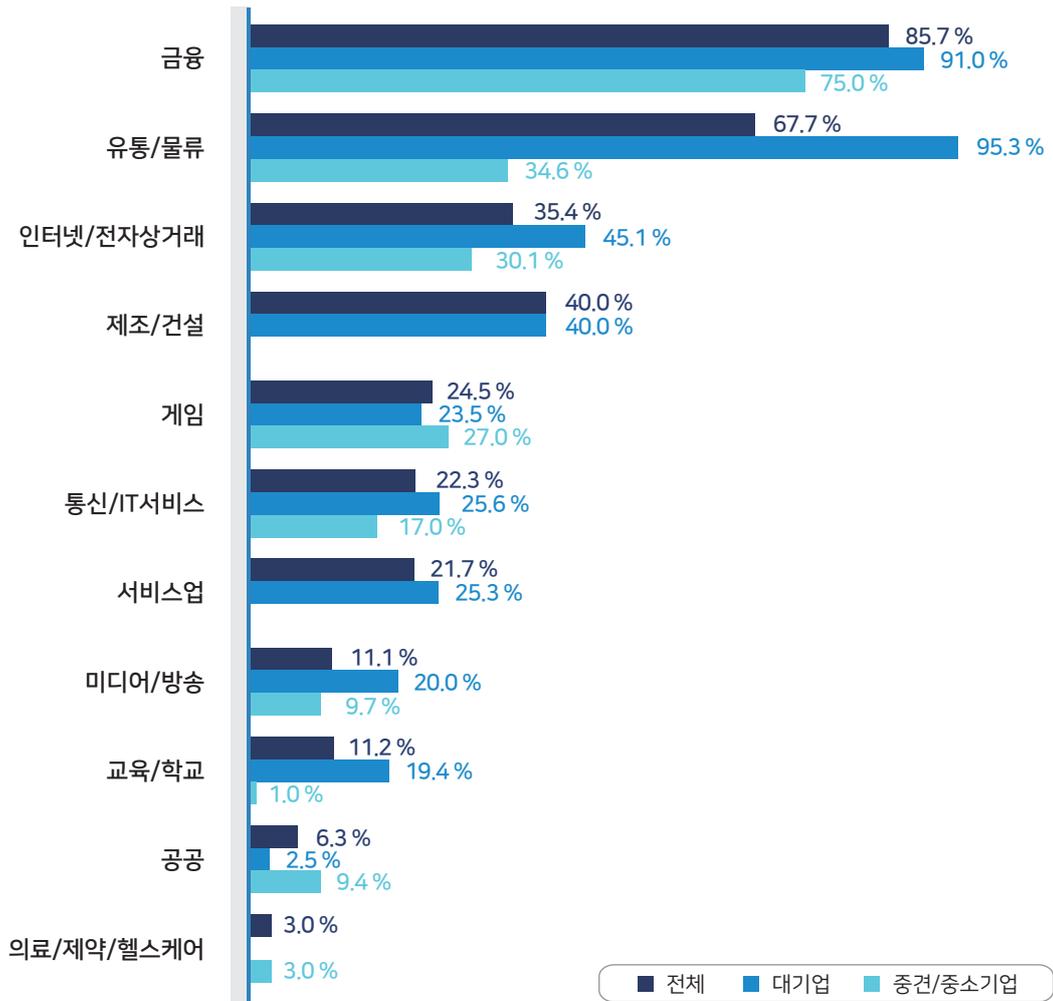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클라우드 예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금융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는 대형 금융권의 91.0%, 중견/중소형 금융권의 75.0%가 클라우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개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업 다음으로는 유통/물류 업종의 67.7%가 클라우드 예산을 확대했으며, 제조/건설 업종이 40.0%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건설업은 CRM 수준의 클라우드를 ERP로 확대하면서 얻은 신뢰, 보안 성능 등의 경험과 더불어 제조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이 클라우드의 예산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라우드 예산 변화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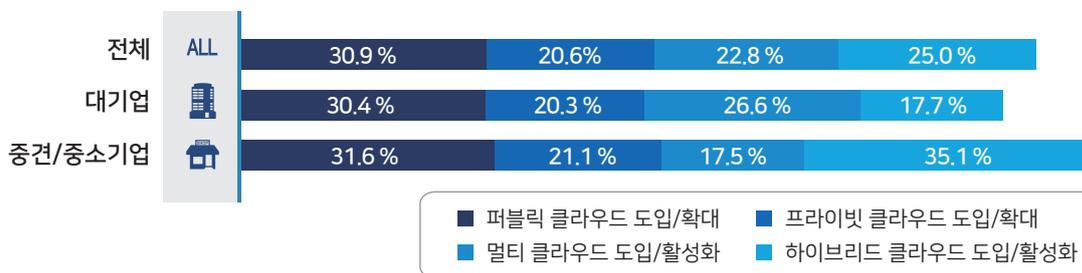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4.2 2019년 클라우드 전략

2019년에도 국내 기업의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활용 전략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활용 전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도입과 활성화를 계획한 기업이 44.1%에 이르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을 계획한 기업도 29.0%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중소기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활성화가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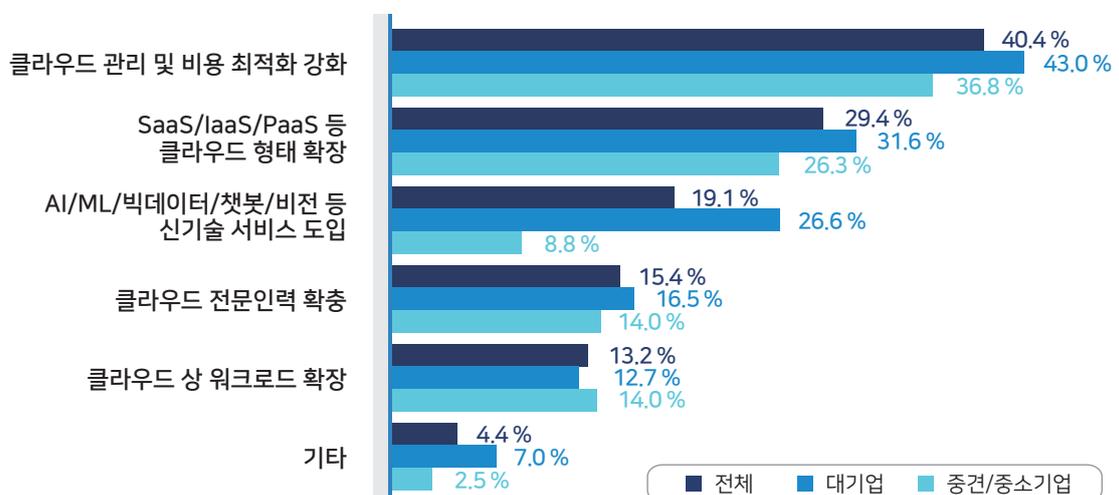
클라우드 전략



4.3 2019년 클라우드 변화

클라우드 기반의 IT 시스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관리와 비용 최적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내 기업은 '클라우드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56.7%, 중견/중소기업의 50.0%가 클라우드 관리 및 비용 최적화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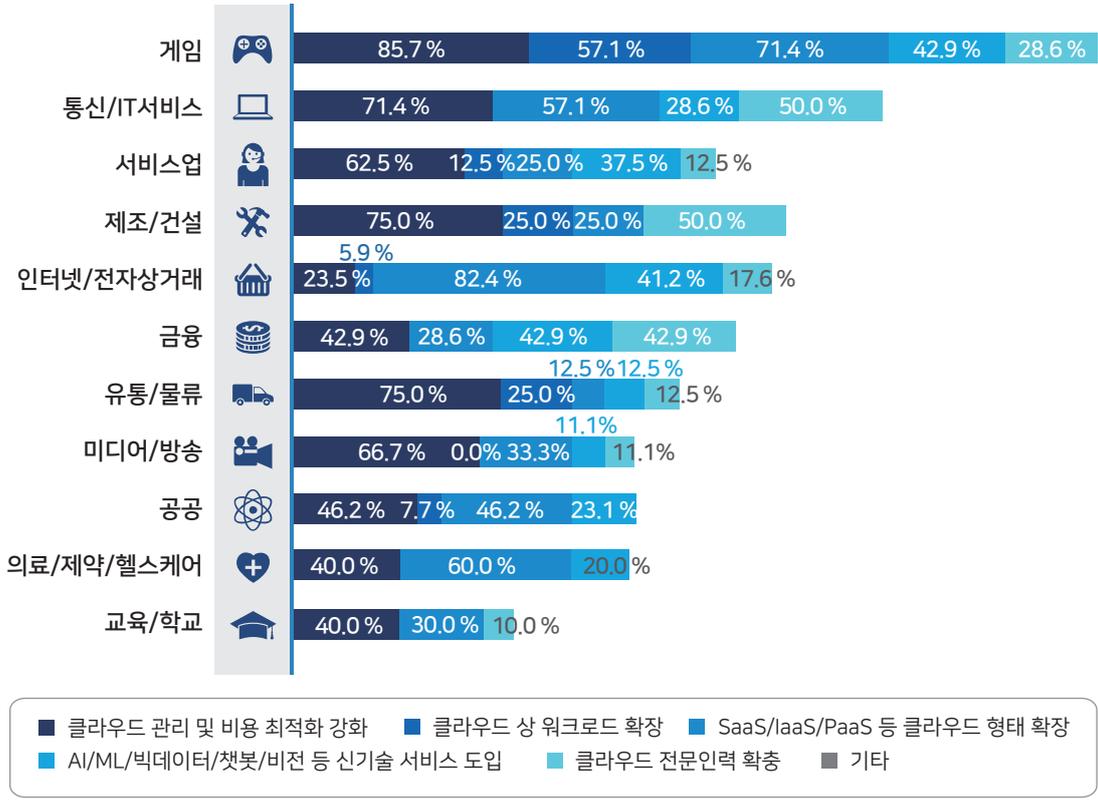
2019년 클라우드 활성화 분야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2019년에는 게임 업종의 85.7%가 클라우드의 관리 및 비용 최적화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게임 업종의 57.1%, 서비스업의 12.5%가 클라우드 상 워크로드를 확장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클라우드 활성화 분야 -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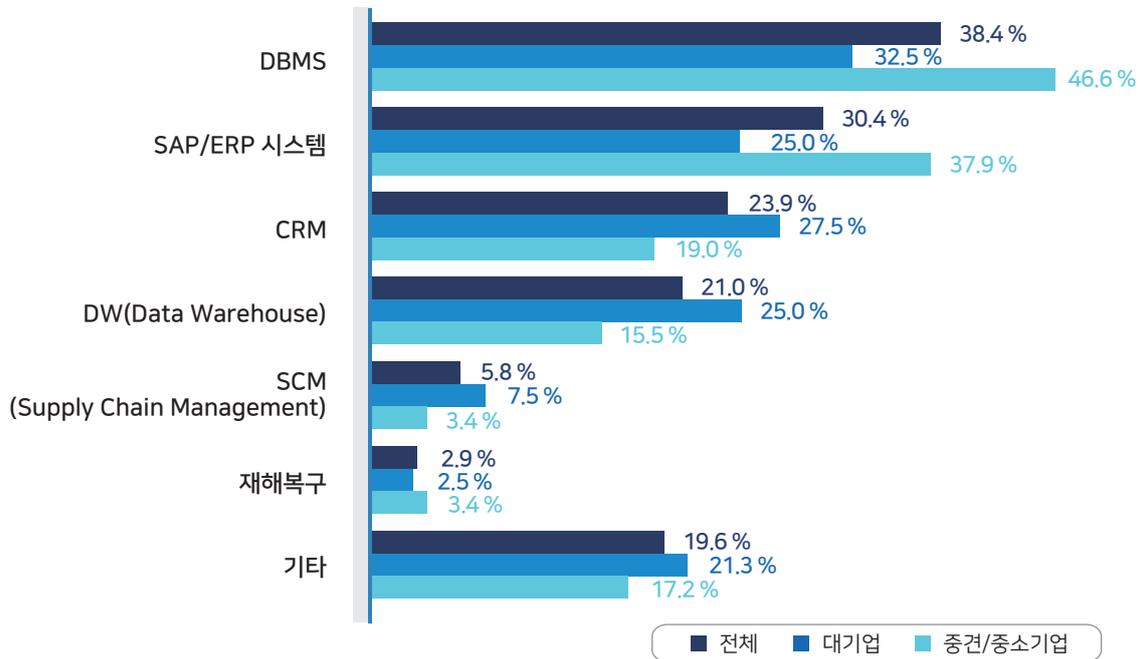


4.4 2019년 클라우드 도입 솔루션

기업은 클라우드 DBMS 구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6%에 이르는 중견/중소 기업이 클라우드 DBMS로의 전환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기업은 32.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BMS, SAP/ERP 등은 기업의 핵심 어플리케이션으로써 보안, 안정성 등의 이슈에 민감했고 클라우드 전환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문을 통해서 기업이 체감하는 보안, 안정성 등 장애요소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해소되었음을 확인됨에 따라 DBMS, ERP 부문의 클라우드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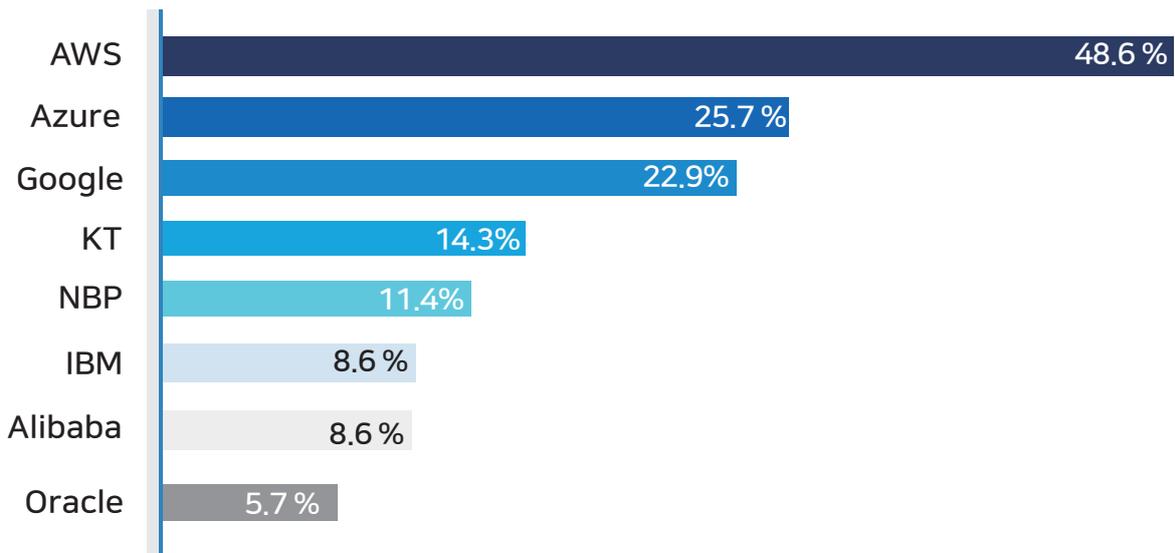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분야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이번 설문에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DBMS의 활용과 관련하여 선호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DBMS 선호도는 AWS의 비중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인 MS Azure는 25.7%를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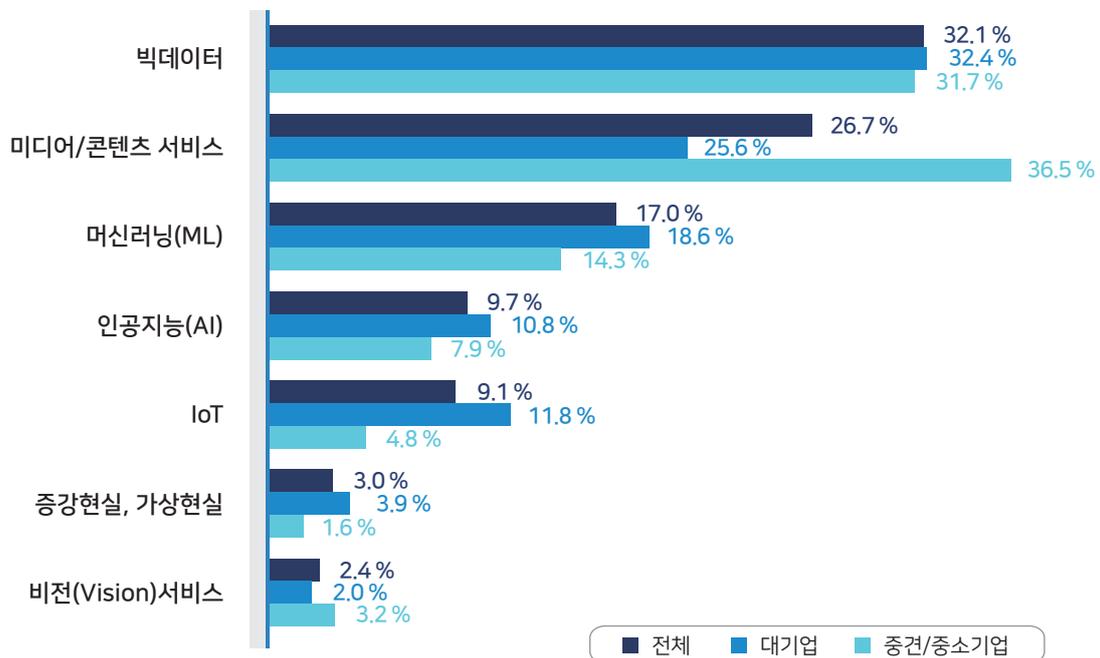
퍼블릭 클라우드 DBMS 선호도 -공급사별



4.5 4차산업 클라우드 관심 분야

레거시 시스템과 4차산업의 융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은 규모에 무관하게 빅데이터를 위한 클라우드 활용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콘텐츠 서비스의 클라우드 활용은 36.5%의 중견/중소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반면 대기업은 25.6%로 낮다는 특징도 확인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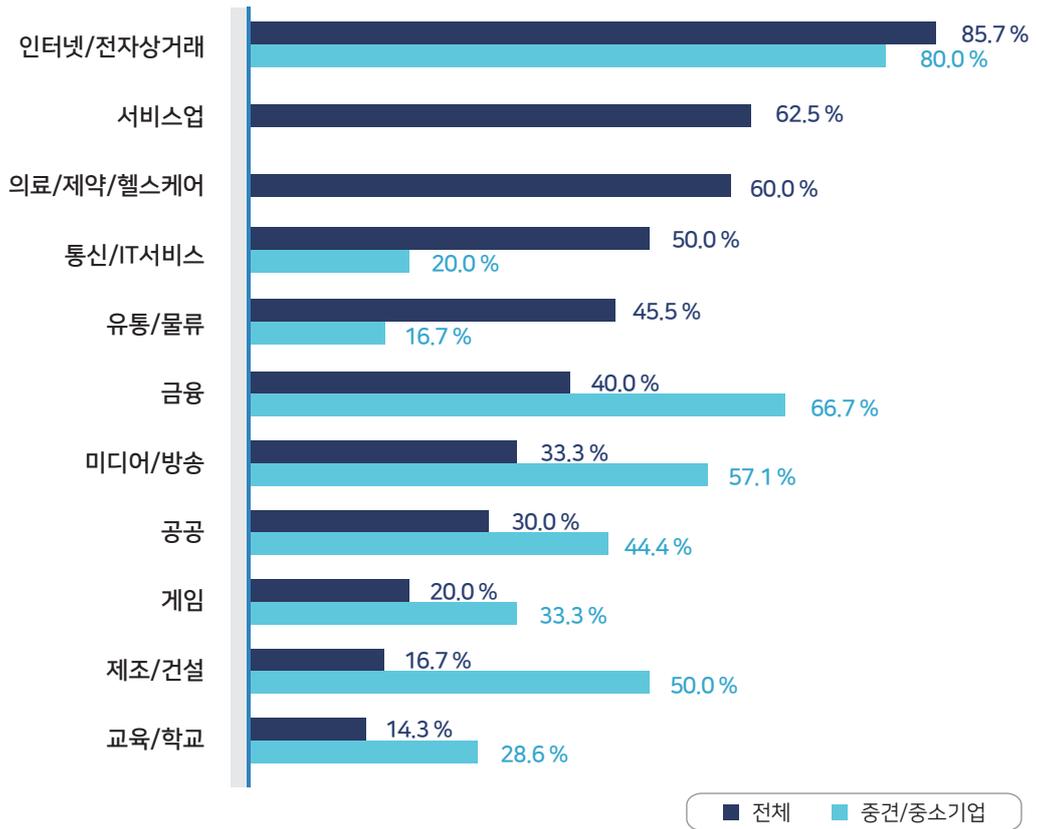
주목하는 4차산업 관련 클라우드 트렌드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활용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업종은 인터넷/전자상거래로 나타났으며,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5.7%, 중견/중소기업의 80.0%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비스, 의료/제약/헬스케어업종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금융, 미디어/방송, 게임, 제조/건설 분야는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의 클라우드화 관심도 - 업종별



*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은 일반 사기업 외에도 공공/학교/교육 등 분야를 포함



5 종합(Summary)

국내 기업은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과 도입/활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번 설문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IT 자원 운영의 효율화, 보안 안정성, 비용절감 등은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시킨 대표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클라우드 활용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넘어 다양한 클라우드를 혼합 사용하는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이용 기업이 특정 벤더의 종속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문을 통해서 확인된 과반 이상의 멀티/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도입/활용 수준도 현재의 클라우드 트렌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의 도입/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기업은 2019년도 클라우드 활성화 핵심 계획으로 클라우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클라우드 전문인력의 확보를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예산을 증액하거나 클라우드 관리 부서 및 정책의 구성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자사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전문 인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클라우드 전문 인력 및 클라우드 관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인 800여 명의 클라우드 IT 전문가를 베스핀글로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Meet 베스핀글로벌 전문 컨설팅 팀

클라우드의 도입을 고민하신다면 베스핀글로벌 컨설팅팀이 최적의 클라우드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Meet 아시아 최고의 클라우드 운영 팀, 베스핀글로벌 매니지드 서비스 팀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노하우 부족이 걱정되신다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베테랑이 여러분의 클라우드를 관리해드립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3년 연속 가트너 매직퀀드런트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페셔널&매니지스 서비스 부문에 한중일 국가 중 최초로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브스로부터 한국의 주목할 만한 유니콘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Meet OpsNow

클라우드 비용을 80%까지 절감하고, 장애 대응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멀티-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CMP) OpsNow를 만나보세요.

About Bospin Global

베스핀글로벌은 세상에서 가장 자동화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회사를 지향합니다.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컨설팅, 도입, 설계 구축, 관리, 운영, 관제, 대응을 모두 책임집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수 많은 고객의 IT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솔루션부터 클라우드에 기반한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의 신속한 도입까지 클라우드 전영역을 End - to - End 로 제공합니다.

클라우드로 가려고 결정했다면 누구와 함께 갈지도 선택해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는다면 베스핀글로벌이 정답입니다

 베스핀글로벌 웹사이트

 서비스문의

베스핀글로벌 소셜 미디어



